

# 김영록 지사, 새해 첫 소통행정

### 딸기 농가 애로 청취...수출확대 위한 의견교환 “끊임없는 연구로 전국 제일 명성 유지”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가 올해 첫 소통행정을 위해 지역 딸기농가를 방문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최근 담양군 봉산면 와우딸기 작목회를 찾아 소통행정 자리를 갖고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품질 경쟁력을 높여 전국 제일의 딸기 명성을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

이번 현장 소통행정에는 최형식 담양군수, 김기성·박종원 도의원 등이 함께 했다.

김 지사 일행은 9년 전 귀농해 6동의 비닐하우스에서 죽향 등 세 가지 품종을 재배하는 김혁중 농가의 시설을 둘러본 후 10여명의 와우 딸기 작목회원들과 전남 딸기산업 발전 및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와우 딸기가 소비자에게 우리나라 최고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은 재배에서 선별·유통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 담양군과 협조해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고, 육묘에서 겪는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죽향·메리퀸 등 품종을 자체 육종 보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담양은 1,000여 농가에서 388ha 딸기를 재배하는 주산지다. 전남 생산량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와우딸기 작목회는 1982년 설립됐다.

한편, 이날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죽향 1kg이 4만5,000원 경락을 기록하는 등 30년째 전국 딸기시세를 좌우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4일 담양군 봉산와우딸기작목반을 찾아 재배현황을 살피고,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수출확대는 물론 전국 최고 딸기의 명성을 이어가자’고 당부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4·15 총선 레이다

### 이정희, ‘에너지가 밥이고 일자리다’ 출판기념회

이정희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는 5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체육관에서 ‘에너지가 밥이고 일자리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출판기념회에는 송영길 전 최고위원, 홍영표 전 원내대표,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김병내 남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예비후보는 저서인 ‘에너지가 밥이고 일자리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과 인연, 한전 상임감사로서의 활동, 광주와 남구의 비전과 발전전략 등을 소개했다.

‘포럼광주’ 대표와 2017년 대선에서 광주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게 된 이유와 과정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또 한전 상임감사 활동을 소개하고, 광주와 남구의 살길이 한전 등을 중심으로 빛가람혁신도시와 연계한 상승 발전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애란 기자

### 이남재 “갈등·숙원사업 해결에 앞장”

이남재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는 지난 4일 광주서구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이남재의 정면돌파’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 예비후보는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생각, 지역에 대한 애정과 비전을 진솔하게 털어놨다. 출판기념회에는 송갑석·이개호·손금주·강훈식 국회의원과

과 지지자 등 1,500명이 참석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낙연 총리, 전남도지사 시절 초대 정무특보로 활동하면서 정치와 행정의 절묘한 조합을 배웠다”며 “지역 방송에서 시사평론가로 활동하며 광주·전남의 다양한 지역 현안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해 왔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이 예비후보는 또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에서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구에서 광주의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한다”며 “갈등 사안은 피하지 않고, 숙원사업 놓치지 않는 광주의 호랑이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애란 기자

### 이형석, 민주당 5·18 40주년 특별위원장 임명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최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위원회와 4·19 혁명 60주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형석 최고위원과 설훈 최고위원이

각각 5·18 특위와 4·19 특위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 최고위원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함에도 우리는 아직도 최초 발표명령자를 비롯한 감춰진 진실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해자들은 속죄는커녕 부



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거액의 재산을 분산·은닉하고 보란듯이 골프장에서, 고급음식점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그들을 다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 이석형 “5·18진상조사위원회 공식활동 환영”

이석형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는 5일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할 ‘5·18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공식 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진상조사위 출범은 그동안 국민적 분열을 야기해온 5·18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다”며 “5·18 진압

작전을 지휘하고 발포를 명령한 최종 책임자를 찾아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폭력 아래 목숨을 잃은 광주 시민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40년 동안 이어져온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윤영봉 기자



했다. 이 예비후보는 “진상조사위는 5·18관련 근거와 철저한 조사와 조차 및 왜곡 경위 확인,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등 5월 단체 제안을 수용하고 백서를 발간해 5·18민주화운동과 같은 국가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봉 기자

### 김병원 “농협 이끈 경험 지역발전 견인”

김병원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는 5일 영산포 우시장을 찾아 축산농가 민심잡기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에 따른 축산업 농가의 고충과 시름에 깊이 공감한다”며 “농협중앙회 회장 재임 당시 개도국 지위포기가 농업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관심사는 경제분야,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적인지를 보는 것”이라며 “법률전문가나 전문 정치인보다는 국내 제계 순위 9위의 농협의 이끌었던 김병원이 이런 국민들의 경제 감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나주와 화순은 농축산업 비중이 큰 지역으로 농업경제를 활성화해 주민소득을 높이는 적극적인 전략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양 지역간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근산 기자

### 서갑원, 오는 11일 순천대서 출판기념회

서갑원 전 국회의원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우석홀)에서 ‘반보 앞서간 노무현의 반보 뒤에서 정치를 배우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반보 앞서간 노무현의 반보 뒤에서 정치를 배우다’는 서 전 의원이 고 노무

현 대통령을 모실 당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청와대·국회·대학을 두루 거치며 쌓은 국정 경험과 이를 통해 느낀 정치에 대한 통찰을 담았다.

출판기념회는 ‘대통령의 글쓰기’로 알려진 강원국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연설비서관과 서 전 의원의 토크쇼로 진



행되며, 정청래 전 의원이 사회를 맡는다. 원혜영 국회의원, 김태연 국회의원, 허삼석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등 내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근산 기자

www.goldlake.co.kr

## 나주호를 누리는 명품 골프클럽

나주호의 쾌적한 VIEW, 여유와 휴식을 함께 누리는 36홀 명품골프클럽 - 골드레이크 컨트리클럽

### 골드레이크 컨트리클럽

GOLDLAKE COUNTRY CLUB

수려한 산세와 나주호수를 그대로 살린 골드레이크 컨트리클럽의 프리미엄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경험하십시오

예약문의

**골드레이크 컨트리클럽**

**061-339-3000**